

문무왕의 **북고신앙과 문화유산** 16 승악사탑

현존 최고 12각 15층 40m (最古)

중국 허난성(河南省) 덩펑(登封)에 가면 유명한 소림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중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승악사탑(嵩嶽寺塔)이 있다. 승악사탑은 덩펑에서 서쪽으로 4km 떨어진 송산(嵩山)의 남쪽인 준극봉(峻極峰)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승악사탑. 허난성(河南省) 덩펑(登封)에 위치한 탑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탑 중 가장 오래된 대형 탑이다.

(520)에 세워진 전탑(塹塔, 벽돌탑)으로 우아한 포물선형의 아름다움이 눈에 띈다. 탑의 꼭대기 부분(塔頂)은 당대에 수리했으며, 높이 39.8m, 둘레 33.7m, 벽 두께 2.45m이다. 탑신은 평면 등변(等邊) 12각형 15층이며, 12각의 형태는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니다.

밀침식(密檐式) 탑 형태로, 1층이 길고 나머지 층은 좁아져 탑신과 처마가 붙어있다. 탑찰(塔刹)과 기대석(基臺石)을 제외하고는 모두 깃빛을 띤 누런색 벽돌로 쌓고 점도로 틈새를 메웠다. 기대(바닥)는 탑신을 따라 12각형으로 만들었고, 탑신에는 15층의 처마가

불탑이 중국에 언제 최초로 건립됐는지는 알 수 없다. 사서 상으로는 삼국지(三國志)에서 2세기경 착음(窄融)의 기사에서 불탑에 관한 기록이 등장한다. 확실한 유물은 북량 시기에 만들어진 428~436년의 명문들이 새겨진 북량 탑들이다. 이 탑들에는 과거칠불이

나 미륵보살, 연기, 발원문, 인도문자인 브라흐미 문자들이 기록돼 있어 초기 불탑신앙의 원류를 짐작케 한다. 특히 인도문자가 새겨져 있는 것은 불탑의 중국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이러한 불탑들 외에는 석굴에 새겨진 조각들을 통해서 초기 불탑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불탑신앙은 본래 불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이었다. 불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기부터 불탑들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었다. 불탑신앙은 인격적인 숭배의 대상을 만들지 않았던 초기불교 시대에 가장 직접적인 신앙의 대상이었다. 불탑 안에 소장된 불사리 또한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지처가 됐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불탑신앙은 대승불교의 출현과 더불어 신앙으로 한층 더 발전하게 된다. 대승불교의 주요 경전인 <법화경>에서는 불탑신앙을 한층 더 발전시키게 된다. <법화경>에는 탑을 조성하고 탑에 공양하는 것은 단순히 복덕을 짓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승 보살은 삼아승지검(三阿耨祇劫) 동안 육바라밀이라는 보살행을 닦아 성불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살행의 공덕을 <법화경>에서는 탑을 조성하고 공양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화신앙은 중국조기불교 불탑건설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말할 나위 없다. 승악사탑은 북위(北魏) 정광(正光) 원년

있었다. 승악사는 본래 선무제(宣武帝)의 이궁(離宮, 다른 지역에 있는 황제의 궁전)으로 후일 사찰로 바뀌었다. 황제의 궁이 사찰로 바뀐 것은 승악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종종 행해졌다.

승악사는 '한거사(閑居寺)'라고 불렸다. 수문제(隋文帝) 인수2년(仁壽二年, 601년)에 사찰의 이름을 승악사(嵩嶽寺)로 바꿨다. 당나라 때 이옹(李雍)이 쓴 <승악사탑기(嵩嶽寺碑記)>에는 '1000여 칸의 사찰로 승려의 숫자만 700명을 넘었다'고 적어 승악사가 대규모 사찰이었음을 알려준다. 낙양을 '동도(東都, 동쪽의 수도)'라고 하며 중요시 했던 측천무후 때에는 이곳을 행궁(황제의 행차 시 사용하던 궁전)으로 삼았을 정도니 승악사의 화려함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현재의 사찰은 쇠락하고 탐만 덩그러니 놓여진 승악사탑은 1400년 세월을 지켜오며 과거의 불탑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 인도의 불탑신앙이 중국으로 들어와 새로운 형태를 갖추던 시기에 출현한 이 탑은 중국식 목탑이 전탑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미술사적 의의를 갖는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북고사진이야기** 61



스님이 물었다. '마음'이 무어나고. 방안으로 햇살을 쏘아져 들어왔다. 대답도 스님이 했다. 당신의 질문을 듣고 있는 그놈이 마음이라고. 노장의 질문과 대답이 바람처럼 지나갔다.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앉아있었다.

법주사 총지선원에서

방안으로 쏘아져 들어왔던 햇살을 구름이 거둬가고 스님은 다시 물었다. 원을 하나 그려 보이며 "이 원 안에 들어가도 30방을 맞고, 들어가도 30방을 맞아야 한다면 어찌 하겠냐"고. 노장이 다시 답까지 했다. "그랬던 원을 지우면 된다"고. 노장의 질문과 대답이 또 한 번 바람처럼 지나갔다. 동안 겨울 이틀 앞둔 법주사 총지선원 선방에서 우리는 그 날 나뭇가지처럼 앉아있었다. 선방 벽에는 다가올 시간처럼 죽비가 걸렸고, 치열한 한 철은 또 시작됐다. 푸른 눈을 뜨고 겨울 나을 선지식을 기다린다.



사진부 차장 wanhollo@hanmail.net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23도 정토계 일체제불장엄

삼화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시방제불의 공덕을 칭찬하는 내용이다. 화면 중앙 대좌에 앉아 설법하고 있는 본존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그 앞에는 제자가 앉아 설법을 듣고 있는데, 그는 본존을 향하고 있어 뒷모습으로 표현됐다. 좌우에는 원 안에 표현된 5불씩 시방제불이 구름에 싸여 있다.

"사리불이여, 반드시 알아야 한다. 사실 나는 수많은 부처님들의 찬탄과도 같이 오탁약세인 사바세계에서 온갖 어려운 고행과 난행을 다 마치고 난 뒤 여기서 드디어 부처가 됐느니라. 그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느니라. 그것은 바로 박복한 중생들에게 극락세계의 장엄과 아미타불의 분원력을 설명하고 그것을 깊이 믿으라고 권유하는 것이니라.(舍利弗 當知 我於五濁惡世 行此難事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爲一切世間 說此難信之法 是爲甚難)"

이 본문의 내용은 중국 명나라 4대 고승 중의 한 사람인 우의 대사(1599~1655)가 <아미타경>의 교학적 근거를 명쾌하게 제시한 <아미타경요해>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믿음과 서원으로 오로지 부처님 명호를 위하는 단 하나의 수행은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

다. 그것은 오탁약세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수행법이다. 오직 믿음을 통해 이 경계에 들어갈 수 있다. 단지 생각만으로는 그곳에 이를 수 없다. 만약 우리의 근본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지럽고 사악한 사바세계에 오셔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보여주시고, 위대한 지혜와 자비로 이 법을 드러내고, 수행하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중생들이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시대가 흐린 세계에 살고 있으므로 분명히 시간에 갇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견해가 흐린 세계에 살고 있으므로 분명히 사탄 지식에 걸려 사탄 스승들에게 속고 있다. 우리는 번뇌가 흐린 세계에 살고 있으므로 분명히 탐욕에 빠져 악업의 집을 지고 있다. 우리는 중생이 타락 세계에 살고

있으므로 분명히 악취 나는 더러움 속에 있는 줄 모르고 만족하여 쉬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향상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타락해 허약한 체로 남으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수명이 흐린 세계에 살고 있으므로 분명히 무상에 먹혀 목숨이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다.(중략) 오직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을 깊이 깨달아야만 우리의 부정직한 태도를 뿌리 뽑고, 정토 수행의 소중함을 귀중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때문에 우리의 스승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지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그 의미를 깨닫도록 하신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회박물관 관장)



고관회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정토계 일체제불장엄(淨土界一切諸佛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cm.

'나이 40이 되어도 이렇다 할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 『논어』 자한편(子罕篇)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100년 동안 세상에 출판된 불교서적은 무슨 책들이 있을까?

시공을 초월하여 독자의 마음에 길이 남아 있는 책은 드물 것이다. 이 책에 선정된 책은 불멸의 명저도 있고, 베스트 셀러, 논쟁이 되었던 책, 화제의 책, 뛰어난 번역서, 출판역사상 특별해야 할 책 등 소중한 자료들로 구성 되었다.

윤창화 저
신국판 / 양장제본 / 404쪽 / 값 18,000원



圓覺經

완전한 깨달음



이제열 경의
신국판 / 318쪽
값 12,000원

금생에 해야 될 가장 큰일이 있다면 마음을 깨닫는 일이다. 중생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비롯한 열두 보살과 부처님의 대화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중생들이 허깨비 같은 무명(無明)을 끊고 불성을 드러내어 진실하고 뚜렷한 완전한 깨달음을 들 수 있을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